



건축학부  
류종관 교수

—  
Do Dream!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자!

—  
**Do Dream!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자!**

빛고을 광주의 전남대학교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지 어언 2개월이 지난 지금, 임용결정 후 처음 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설렘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설 등이 조금은 사라져가는 동시에 대학 교수로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한 그림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직도 교수 새내기인 이 시점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건축음향과의 만남**

대학 학부를 졸업한 90년대 후반, IMF의 영향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모 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학부 졸업 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 현장에 투입 되어 첫 사회생활을 영종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인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로 출근하고 토요일에 다시 복귀하는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자긍심으로 힘든 현장 업무를 견뎌왔으나, 단편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전문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건축음향이라는 지금의 전공분야를 알게 되었고, 바로

현양대 대학원 지도교수를 찾아가 대학원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음향을 전공하는 기존의 교수님이 국내에 손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신 전남대 김선우 교수님이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셨고, 그 이후에 5여명의 교수님들만이 이 분야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악과 건축, 이 두 가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루는 학문이 건축음향분야인지라 누구보다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수많은 실험과 논문, 학회 발표, 해외 연구 연수 등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산/학/연 기관에서의 소중한 경험**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기술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연구계, 학계, 산업계의 순서로 연구경력을 쌓아 온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직후, 일본의 국립연구소(산업기술총합연구소, AIST)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저주파 소음과 바닥충격음(층간소음)의 감성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음에 대한 감성특성과 관련된 심리음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원 과정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실험을 계획,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훈련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운이 좋게도 일본 학술진흥재단(JSPS)의 외국인 특별연구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는 물론 생활비도 꽤 많이 지원받아 풍족한 일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본생활 3년 즈음 귀국 후 한양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1여 년의 짧은 학교생활이었지만 학부, 대학원 강의를 통해 학생교육에 대한 철학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후, 포스코건설 R&D center로 직장을 옮겨 공동주택 바닥충격을 저감기술 개발, 외부소음 차단기술 개발 등을 통한 Zero-Noise 공동주택 개발과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주 업무로 하였습니다.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던 시절이었습니다.

#### Do dream!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건축 잡지를 보며 가졌던 건축의 꿈이 건축공학과 진학을 이끌었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이 지금은 22주년이 된 통기타동아리를 구성하게 하였고, 건축과

음악에 대한 꿈이 지금의 전공분야인 건축음향을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 기술개발과 현장 기술지원 등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연구에 대한 갈증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를 꼭 해 보자'라는 꿈을 놓지 않았던 노력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인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강의준비로 일주일이 총알같이 지나가는 바쁜 일상에도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에 대한 고민의 달콤한 시간이 있어 행복합니다. 교육자인 동시에 연구자인 대학의 교수로서 또 다른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